

2015. 5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5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사	
2015.5.26.	대전MBC 대회의실	8/10	7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박희원, 김형주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7	6	-	1	14	-	1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0	5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9건	9건	4월
교양	교양프로그램(전국이 보인다)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재로	<전국이 보인다> 시청자에게 도움되는 정보 제공	4월
보도	토론 프로그램(시사광장) 토론자간 시간 배분 적절하게	시사광장 출연진간 토론 시간 배분 적절하게 배분, 진행하고 있음	4월
교양	'너무'라는 용어 사용 어법에 맞게 사용	바른 말 사용 교육 진행	4월
보도	원자력안전문제 지속적 보도	원자력안전보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음	4월
기타	다시보기 모바일 서비스 향상되고 있음	모바일 서비스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음	4월
보도	반값 중개료 자막보도시 정확성	자막보도 몇 단계 거쳐 스크린 작업하고 있음.	4월
교양	전통시장 조명 필요	로드다큐(테마기행 길)에서 조명	4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 요일별 섹션화	교양 프로그램(생방송 아침이 좋다) 요일별로 섹션 특화	4월
교양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좋은 강연회 계속할 필요 있음	시리즈로 특별강연 기획, 방송함.	4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4.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5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지난 5월 3일 국내외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래학자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를 모시고 ‘미래는 어떻게 변해 가는가’를 방영하였다.</p> <p>의견에 앞서 시청 소감을 한마디 한다면 “시청자에게 미래세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켜 준 내가 본 대전MBC 프로그램 중 역대 최고였다” 라고 평하고 싶다. 이날 특강에서 박영숙 대표는 3D 프린터, 드론, 무인자동차, 사물인터넷 등 상상속의 개념에서 현실로 다가온 최신 과학기술 외에도 그래핀, 나노트리, 환경의 변화와 사라지는 국경 등 앞으로 펼쳐질 미래세계를 조망하였다. 특히 첨단기술이 우리 일상을 바꾸고,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 예측보다 훨씬 빨라서 직업의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미래 예측에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다.</p> <p>그리고 1회성 방송을 통해 시청자 의식에 변화를 주고 시청자를 깨우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이번 특강은 시청자에게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변화가 세상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일깨우고 알려준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본다. 다만 주어진 시간 속에 많은 미래예측에 대한 정보를 전하다 보니 미래 예측 개별 건별로 정보에 대한 깊이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가장 아쉬웠다(장백기).</p>	<p>대전MBC에서는 시청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에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미래특강 시리즈를 방송하고 있다</p> <p>일요일 아침 8시에 편성된 미래특강 1편 <미래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는 우리 앞에 다가온 미래의 모습을 미리 살펴보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프로그램이다.</p> <p>내용에 비해 다소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다음 편성에서는 참고 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시간대 편성도 내용에 보다 적절한 시간을 고민하도록 하겠다.</p>	○		
보도	<p>대전MBC의 시사광장과 시사플러스는 지역현안과 이슈에 대해 올바른 지역여론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p> <p>지난 1월 30일 시사플러스에서는 ‘고령화의 이면, 노인자살’ 편을 다루었고, 이번 5월 3일 시사광장에서는 ‘외로운 황혼, 노인문제 해결 방안은?’ 을 주제로 다루었다.</p> <p>우선 방영된 두 프로그램의 보도 및 토론 내용면으로 공통점을 찾는다면 노인 자살을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이다.</p>	<p>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주제가 명확해야 하고 토론이 그 주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청자들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로운 황혼, 노인문제 해결 방안은?’의 경우 토론이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토론자들이 특정 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 주제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역시 시청자들에게 균형을 잃은 토</p>	○		

	<p>부연하자면 시사플러스에서는 ‘고령화의 이면, 노인자살’이란 제목을 가지고 노인 자살을 문제를 이야기했고, 시사광장에서는 ‘외로운 황혼, 노인문제 해결 방안은?’이란 제목을 가지고 노인 자살을 문제를 주로 이야기 나누었다는 점이다.</p> <p>다른 점을 살핀다면 시사플러스의 제목과 이야기 내용은 매치가 되었다면, 시사광장의 제목과 이야기 내용은 좀처럼 매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p> <p>보통의 경우 ‘외로운 황혼, 노인문제 해결 방안은?’을 이해한다면 ‘외로운 황혼이 노인의 문제이고 외로운 황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로 이해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시사광장에서 토론을 하였다면 그 이야기 내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것이다.</p> <p>그런데 이번 시사광장에서 주요 토론 내용이 노인우울증과 노인자살을 문제였던 걸로 보아, 시사광장에서는 외로운 황혼이 노인 자살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그 예방과 대책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목선정은 ‘외로운 황혼이 부르는 노인문제, 그 해결 방안은?’으로 잡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장백기).</p>	<p>론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점 공감한다. 앞으로 소주제 별로 적절하게 시간이 배분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p>		
<p>교양</p>	<p>5월 16일 건강플러스에서는 기관지에 좋은 음식과 백내장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 관해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하였다. 맛있는 처방전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약해질 수 있는 기관지에 좋은 은행과 도라지를 이용한 요리를 소개하였다. 봄철 시기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요리법과 구체적인 음식의 영양정보를 시청자들이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한 스튜디오에서는 백내장의 원인, 증상, 녹내장과 차이, 치료법 등에 대해 안과 전문의가 직접 출연하여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제 백내장 환자의 인터뷰를 듣거나, 시청자들의 질문을 직접 받고 대답해 주는 부분은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전문의의 설명에 전문용어가 다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자세히 되어있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을 자막으로 보여주거나 다이어그램 등을 활용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오덕성).</p>	<p>방송용어의 사용과 선택은 제작진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의 경우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용어를 쉽게 풀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청자분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한다.</p> <p>바르고 편안한 용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p>	<p>○</p>	
<p>교양</p>	<p>5월 17일 테마기행 길에서는 충남 서북부</p>	<p><테마기행 길>은 민방소재 9곳 지역</p>	<p>○</p>	

	<p>지역 내포에 바다가 풍요로운 제철을 맞아 맛있는 봄바다를 만나보는 시간이었다.</p> <p>내포에서 먼저 찾은 당진 장고항에서는 봄철이 아니면 맛볼수 없다는 귀한 물고기를 직접 잡으러가 일손을 돕고 태안 갯벌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는 장면은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전해지는 듯했다. 또한 각종 소개되는 해산물의 별미를 소개시켜주어 시청자들이 미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전문리포터가 아닌 개그맨 리포터가 재미있는 말솜씨로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였다. 또한 리포터의 친근한 설명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인터뷰 등은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내포를 찾은 관광객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웃음 짓게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p> <p>아름다운 내포바다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힐링여행은 당진시, 태안군의 넉넉한 인심과 해산물의 잔치로 기억될 것이다(오덕성).</p>	<p>MBC가 권역을 탈피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10년이 넘도록 공동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각 계열사의 특성에 따라 포맷과 진행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취지아래 향토적 소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현장전문 개그맨 나경훈을 투입, 주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계절에 맞는 특산물과 풍광을 소개하며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추구해 보았다. 호평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시청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테마기행 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p>		
기타	<p>대전MBC 홈페이지에 대해 말하겠다. 뉴스 데스크, 뉴스투데이, 이브닝뉴스를 메인화면의 첫줄에 배치하였고, 각 뉴스의 창을 들어가면 뉴스기사별로 볼 수 있게 게시되어 있어 시청자가 관심 있는 내용만 선별적으로 볼 수 있어 편리하다. 인기 VOD로 토크 앤조이, 시사광장, 시사플러스도 메인 화면에 배치하여 관심 있는 시청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람직하다. 시청자의견란을 보니 특정인이 표준FM과 F4U의 프로그램 편성 수정에 대해 유사/동일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답글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질문에 대한 답글이 질문란에 게시되지 않고 별도 란에 게시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질문에 대해 한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게시하면 질의와 답글을 동시에 볼 수 있으므로 좋을 것 같다.</p> <p>TV 주간편성표에 보면 5/17(일), 특집 '마르코폴로의 실�크로드 2부' 가 방영되었는데, 특집프로그램 1-2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VOD 업로드 요망한다(김명수).</p>	<p>특정인이 게시판에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올린 것은 정리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글이 같은 란에 게시되어 동시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하였다.</p> <p>'마르코 폴로의 실�크로드'는 외주사로부터 구입하여 방송을 한 것인데 외주사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지상파방송 1회에 한정되어 방송할 수 있다. VOD로 업로드 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p>	○	
보도	<p>시사광장(5/17)에서 "총선 앞둔 지역정가, 무엇을 준비하나?"를 다루었다. 사회자가 서두에 토론의 주제로 선거제도 개편, 지역신당 가능성, 선거구 재획정 등을 소개한 것은 오늘의 토론내용이 무엇인가를 시청자에게 알려주는 효과로 바람직하다. 선거제도 개편 관련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국민경선제(오</p>	<p>앞으로도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 관련 정보 욕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정치 및 선거 관련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겠다.</p>	○	

	<p>폰프라이머리)는 각 제도의 장단점과 정당별로 다소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충청권 선거구 증설 가능성은 전문가와 민관정 범시민협의체가 충청권의 요구를 집약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인구비례로 볼 때 영남, 충청, 호남 순이나 현재는 호남의 석수가 충청보다 많으므로, 정치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충호 시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선거구 증설을 통해 정치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자의 마무리 멘트가 적절하였다(김명수).</p>			
<p>방송 편성</p>	<p>미래특강 (5/3) <미래는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흥미 있게 시청하였다. 유엔미래포럼 박영숙 대표를 초청하여 80년대 네트워크→인터넷→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었다.</p> <p>3D 프린터 자동차, 식품, 의료 등 다양하게 활용 → 4D 프린터 등장, 자동차 ⇒ 무인전기차 소재:그래핀, 고효율 태양전지, 배양육/인공우유 냉동보존 : 포스트휴먼 - 수명연장, 기후변화 → 해수면 상승 ⇒ 해상거주 프로젝트, 2045년 1인 기업시대 → 완전 무고용 ⇒ 의미 있는 삶 추구 등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다.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유익한 내용인데 방송시간이 일요일 오전 8시라 실질적으로 시청이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김명수).</p>	<p>시청자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평을 해 주어 감사하다. 앞으로 미래특강 성격의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청시간대를 확보하여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p>	○	
<p>교양</p>	<p>최근 들어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마지막 인사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게 꽤나 자연스러워 졌다. 한때 이 말 대신에 '감사합니다'가 대세였다. 그런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우리말 사랑 운동'이 펼쳐지면서 일본식 한자어인 '감사'를 우리말인 '고맙습니다'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선 방송 현장에선 여전히 '감사합니다'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고맙습니다'가 왠지 웃어른들에게는 존대어로 다가가기엔 다소 껄끄럽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그래서 좀 더 공손한 느낌이 드는 '감사합니다'가 무난하다는 것이다.</p> <p>'고맙다'는 '남의 신세나 은혜를 입어 마음이 즐겁고 흐뭇하다, 남이 베풀어 준 신세나 은혜에 대해 즐겁고 흐뭇하다'는 뜻을 지닌 형용사다. '고맙다'의 어근 '고마'는 원래 '신, 존경' 이라는 의미였다. '고맙다'는 '존귀하다, 존경하다'는 뜻을 지닌 말이</p>	<p>아나운서 및 진행자에 대한 바른말 사용 교육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에 대한 사용례와 방송에서의 부적절한 사용 등은 진행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겠다.</p>	○	

	<p>다. 따라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를 베푼 상대방을) 참으로 신과 같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이 된다. 어마어마한 칭송의 말인 셈이다. 이렇듯 ‘고맙다’라는 어원이 이토록 대단하다면 그동안 무의식중에 써 왔던 ‘감사합니다’를 과감히 버리고 ‘고맙습니다’를 쓰는데 주저 할 필요가 없다.</p> <p>한 가지 문제점은 있다. ‘감사합니다’를 ‘고맙습니다’로 대체하는 데는 우리가 없지만 ‘감사’를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다는 점이다. ‘감사’는 ‘고마움’으로 바꾸어 쓸 수는 있지만, ‘감사장, 감사패’등의 단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안이 없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김학선).</p>				
<p>교양</p>	<p>이 달 들어 눈에 띈 TV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프로그램 PR이 상급해서 좋았다. 방송 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의 사전 준비하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카메라 앵글에 담아냄으로서 시청자들에게 무리없이 다가 갈 수 있었다. 화면 밖의 상황들을 평소 궁금하게 여겼던 시청자들에게 한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기까지의 과정을 단편적으로나마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듯싶다. 이러한 시도는 뉴스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해 볼 직 하다. 특히, TV화면의 사각지대인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을 담아 TV를 통해 내 보낸다면 시청취자에게 보다 친근감을 안겨 줄 듯싶다.</p> <p>이 번 TV PR에서 한 가지 눈에 거슬렸던 점은, 화면 한 가운데에 프로그램 소개 자막이 자리 잡고 있어서 화면 집중도가 다소 떨어진 느낌이 들었다. 익숙해져 있는 화면 아랫부분이 더 낫겠다(김학선).</p>	<p>직접 제작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별 PR을 적극 제작 방송하고 있다. 자막에 대한 부분은 숙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p>	○		
<p>교양</p>	<p>허참의 「토크&조이」(5월 23일)에서 서울 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가 출연하였다. 국내 제1호 프로파일러로서 범죄 관련 에피소드를 재치 있게 전달하였다. 대형사건의 사례와 원인을 설명하면서 “시신을 토막내어 사체훼손, 비닐봉지에 담아...”, 등의 표현이 있었다. 가정의 달인 5월의 주말 아침 가족과 함께 시청하는 소재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p>	<p>토크&조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 소개하고 있다. 국내 프로파일러 1호인 배상훈 교수편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프로파일러의 세계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다.</p> <p>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분들이 출연하여, 다양한 시청자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겠다.</p>	○		

	가정과 사회에서 사회성을 키워 작은 정의부터 실현하고 건강한 우리사회 지키자는 초대손님의 클로징 멘트는 적절하였다(한찬희).				
보도	시청자들이 전문적 용어를 접할 때 낮설어한다. 그 예가 건폐율, 용적율 같은 건축용어이다. 건축관련 기사 중 건폐율, 용적율이 별 다른 설명 없이 뉴스처리 되었다. 일반 시청자들이 얼마나 이해할 줄 모르겠다. 전문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 전달하기를 바란다(송인덕).	시청자가 이해하기 위한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다. 어려운 단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쉬운 용어로 풀어서 방송하도록 하겠다.	○		
보도	최근 권선택 대전시장 관련 뉴스를 보면 검찰 발 뉴스를 받아서 단순히 전달하는 느낌을 받는다.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심층적으로 취재해 선제적으로 탐사보도의 형식으로 깊이 있는 뉴스를 해줄 수는 없는가? 권선택 시장측과 검찰측 중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가? 심층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다(송인덕).	대전MBC는 1999년 법조비리 특종보도 등 법조 관련 대형보도에 강점을 보였다. 다양한 취재원과 접촉해 앞서가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정보 통제와 반론권이 강화되면서 취재에 제약이 많은 상황임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보도	단신보도에 사용하는 영상을 보면 지나치게 획일적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건물을 보여준 후 일하는 공무원들의 단편적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처리하고 있어 취재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건물 위주의 영상을 탈피하기 바란다(송인덕).	뉴스 영상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편성국 영상부와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화면을 보강해 지루하지 않은 영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	
보도	보도국 천안지사와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뉴스가 전파를 탄다. 영상 부분도 화질이 다소 떨어지지만 특히 오디오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 파울링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목욕탕에서 들리는 웅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궁금하고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깨끗한 음질의 뉴스를 접하고 싶다(송인덕).	방송 전용 스튜디오가 아닌 일반 건물을 방송용으로 일부 개조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 뉴스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방송기술센터와 협의해 오디오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 말씀처럼 사소한 것이 방송의 품질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		
보도	시사플러스와 시사광장을 비교해 보면 제목도 겹치고 내용도 자주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사광장을 보면 자료화면 또는 취재영상이 없이 오로지 패널들의 이야기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 단조롭고 지루하다. 흡인력이 많이 떨어진다. 패널들 간 치열한 공방 없이 사안에 대해 설명식으로 진행이 되다보니 재미도 없다. 임팩트 있고 식견 있는 전문가를 많이 발굴하여 프로그램에 활기를 심어주기 바란다(성정모).	시사플러스와 시사광장은 시사 문제를 다룬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문제에 접근하고 풀어내는 방식은 현저하게 다른 별개의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 두 프로그램 모두 중요한 이슈를 주제로 정하다 보니 비슷한 제목이 나오기도 한다. 사전 조율을 통해 가급적 주제가 겹치는 것을 피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		○	

